

(9월 다섯째 주)

말씀은 이뤄진다

◎ 본문말씀: 예레미야 39:1-18

1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구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2시드기야의 제십일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3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4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5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6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8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9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10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11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13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14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15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6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눈 앞에 이루리라

17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 묵상하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경고하고 예고하신 심판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똑같은 상황 앞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사람들을 봅니다. 한 편은 시드기야 왕과 그의 사람들이고, 한 편은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했던 시드기야 왕과 그의 사람들은 예언대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반면,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를 구해준 에벳멜렉(38:7-13)은 모두가 고통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멸망과 죽음이지만 믿음의 결과는 평안과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적용하기

성경 속 말씀들은 그저 과거에 있던 죽은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게도 적용되는 약속들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도 휘둘리지도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녀에게, 또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순종,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생각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을 믿나요? 오늘 내가 믿고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때에 심판과 멸망이 아닌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자녀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나의 믿음과 일상과 행동을 어떻게 바로잡을까요?